

## 우주

## Hughes의 파산 보호 신청, GEO 위성통신 시대의 쇠퇴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 Hughes의 파산 보호 신청, GEO 위성통신 시대의 쇠퇴

지난 8 월 4 일, 에코스타(EchoStar) 산하 위성통신 기업 휴즈(Hughes Satellite Systems)가 텍사스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챗터 11(Chapter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8 월 1 일 만기가 도래한 약 15 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상환할 현금이 부족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신청 대상에서 해외 자회사는 제외됐으며, 모회사 에코스타와 여타 계열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성 TV·통신 계열사인 Dish DBS와 Dish Wireless가 한 달 앞선 지난 7 월 챗터 11 을 신청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에코스타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파산의 근본 원인은 위성 브로드밴드 시장의 무게중심이 정지궤도(GEO)에서 저궤도(LEO)로 이동한 데 있다. 휴즈의 구조조정최고책임자(CRO)로 선임된 FTI 컨설팅의 로버트 델 제니오는 스타링크 등 경쟁사가 압도적인 규모를 확보하며 휴즈넷(HughesNet) 서비스와 직접 경쟁하게 됐고, 저궤도 위성과의 경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글로벌 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휴즈넷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2020 년 150 만 명을 웃돌았지만 최근 1 년 사이에만 약 22% 감소해 약 64 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휴즈는 현재 자체 보유한 주피터(Jupiter) 위성 3 기와 임차 위성 3 기 등 총 6 기의 정지궤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법원 관리 아래 소비자 브로드밴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엔터프라이즈·정부·국방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정지궤도 위성통신인 휴즈의 파산보호 신청은 정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쇠퇴를 의미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속도·지연시간·확장성 전반에서 우위를 굳히면서, 정지궤도 사업자들은 소비자 시장에서 밀려나 정부·국방·엔터프라이즈 등 특화 시장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휴즈의 회생 계획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 있으며, 향후 위성통신 산업의 경쟁 구도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보유 여부와 방산·엔터프라이즈 수주 역량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한주 간 주요 뉴스

블루오리진, 뉴글렌(New Glenn) 폭 발 원인은 BE-4 엔진 밸브 결함

로켓다인(Rocketdyne), 독립 우주기업으로 재출범

텔레셋(Telesat), 캐나다 국방부와 16 억 3 천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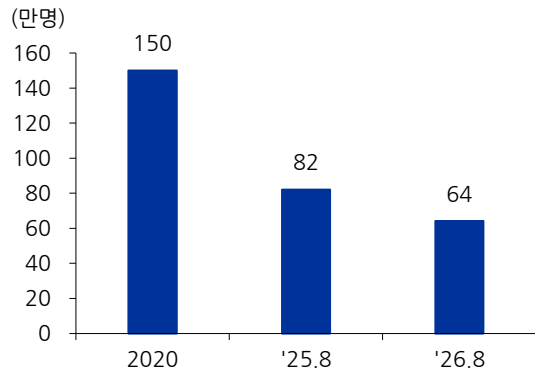
미 우주군, 로켓랩 등에 공중이동표적추적(SB-AMTI) 위성 추가 계약 발주

스페이스 X, 이달 말 스타십 첫 궤도 비행 추진

스페이스 X, AST 스페이스모바일 블루버드(BlueBird) 위성 3 기 발사

미 공군, 블루오리진과 로켓 화물수송 연구 계약 확대

## 휴즈넷(HughesNet) 브로드밴드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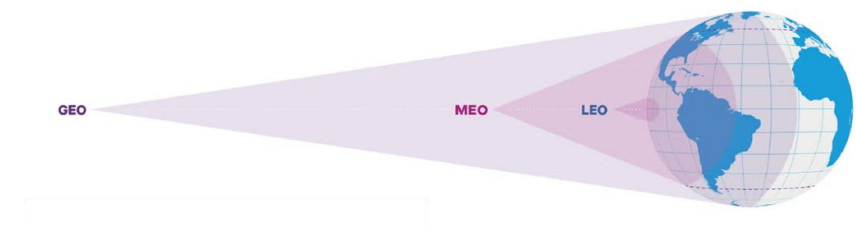
자료: HughesNet, 유진투자증권

## EchoStar의 Jupiter-3 satellite



자료: EchoStar, 유진투자증권

## 정지궤도(GEO), 중궤도(MEO), 저궤도(LEO) 비교



자료: Via Satellit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3%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94%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3%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 0%  |

(2026.06.30 기준)